

▶ 달러/원 주간 전망

• 단기 급락 부담 vs 추세 전환 저울질

서울, 7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여부와 함께 수급 변화를 살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50-1,295원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가 촉발한 달러 약세에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약 40원 떨어져 작년 11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지난 2월 환율 수준까지 미끄러진 환율은 이번 주 달러와 증시 반응을 주로 살피며 그간의 박스권으로 서둘러 돌아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추세 전환 굳히기 장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미국 연착륙 기대가 강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증시 조정 우려는 다시 낮아졌다. 연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한 차례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진 여건에서 약달러와 증시 강세 조합의 지속 여부는 원화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전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원을 넘게 사들였다.

다만 최근 달러와 증시 보폭이 워낙 컸던 만큼 단기간 조정 분위기 속 시장 전반이 숨을 고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단계 낮아진 박스권 상단이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주목할 해외지표로는 우선 중국 2분기 GDP 성장률과 6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중국 2분기 GDP는 기저효과 영향에 전년비 7.3%로 1분기 4.5%보다 확대되겠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0.5% 증가해 1분기 2.2%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결정 이벤트도 대기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한 정책 도구 가지고 있으며 경기대응적 조정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게 점쳐지지만, 금리 결정 결과는 확인할 변수다.

약달러 확산에 위안 약세가 진정되고 이 같은 영향을 원화도 많이 받은 만큼 위안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할 듯하다.

금주는 단기 주거래 박스권을 찾는 원화의 움직임이 대체로 예상된다.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7월17일(월)

- 한국은행: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락처 방안 (BOK이슈노트 2023-22)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14:30)
- 기획재정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16~18일)

7월18일(화)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면담 진행 (17:30)
- 기획재정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16~18일)
- 한국은행: 「상세채권통계」신규 공표 (배포시)

7월19일(수)

- 기획재정부: '23년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결과 (11:00)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3년 2/4분기 동향 및 2023년 3/4분기 전망) (12:00)

7월20일(목)

- 한국은행·통계청: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4:00)
- 기획재정부: 1차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5:00)
- 기획재정부: 2023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7월 발행실적 (배포시)

7월21일(금)

- 관세청: 7.1~20일 수출입 현황
- 한국은행: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28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12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 (12:00)
- 기획재정부: 1차관 신성장전략 TF 회의 (14: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1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7월10-17일		중국	FDI(YTD)	6월		0.10%
7월17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YTD)YY	6월	3.5%	4.0%
7월17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6월	2.7%	3.5%
7월17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6월	3.2%	12.7%
7월17일	11:00	중국	GDP YY	2분기	7.3%	4.5%
7월17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7월	-4.30	6.60
7월18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6월	0.5%	0.3%
7월18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6월	0.0%	-0.2%
7월18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7월	56	55
7월2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10일 주간	242k	237k
7월20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기업활동지수	7월	-10.4	-13.7
7월20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6월	4.21M	4.30M
7월21일	08:30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YY	6월	3.3%	3.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10일(월)

-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18일까지)
- ⊙ 휴장국가: 일본

7월18일(화)

- ⊙ 호주 중앙은행 7월 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오전 10시30분)

7월19일(수)

- ⊙ 데이브 램스덴 영란은행 부총재, 양적 긴축 관련 연설 (20일 오전 1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금주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과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릴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내용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외에도 러시아와 중국 재무부 고위 관료들도 참석한다고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 中 2분기 GDP 및 6월 주요 경제지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과 6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17일 발표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로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인 7.3%를 기록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1분기에는 4.5%였다.

전분기 대비로는 0.5%로 1분기의 2.2%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표가 부진하면 구체적 정부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이다. 이번 달 말 열릴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전후로 분위기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美 테슬라 등 실적 발표

이번 주에는 테슬라(19일)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대형주 가운데 하나인 테슬라 주가는 지난 14일 미국 증시에서도 실적 기대감에 1.3% 상승했다.

주요 은행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18일), 골드만삭스(19일)도 실적을 발표하며, 그 밖에 존슨앤드존슨(20일), 넷플릭스(19일), 필립모리스(20일)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 英 인플레이션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19일 발표될 영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비 8.2%로, 5월 기록한 8.7%보다 둔화됐을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추정했다.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7.1%로 추정됐다.

지난 11일 영국의 3~5월 임금 상승률이 전망보다 높은 7.3%를 기록했다는 발표 후 시장은 영란은행의 8월 금리 인상폭이 50bp가 될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영란은행이 8월 회의에서 금리를 5.25%로 25bp 인상하리라 전망했었다.

⊙ 흑해곡물협정 연장 여부 주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곡물 및 비료의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맺었다.

러시아가 자국 식품 및 비료 수출 제한을 없앤다는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협정 기한이 만료된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식량, 비료 수출은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며 협정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中 글로벌 투자자들 초청 회의 예정

홍콩, 7월14일 (로이터) -

중국 금융 당국이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을 다음주 심포지엄에 초청했다고 소식통 3명이 전했다. 최근 경기 부진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 외국인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청 문서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는 21일 베이징에서 이뤄지며, 중국 내 달러표시 투자 회사들의 현 상황과 이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이처럼 중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명확한 의제가 있는 만남은 이례적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중국 정부의 열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반사모펀드(GP)로 알려진 사모펀드(PE) 등 국내외 대형 펀드매니저와 국부펀드·연기금 등 이들의 투자자나 유한책임사원(LPs)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시장진단) - 美 물가가 촉발한 약달러... 추세 전환 변곡점 지나는 달러/원

서울, 7월1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글로벌 달러 약세 압력이 심화되자 14일 달러/원 환율은 5개월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추세 전환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미국 6월 물가지표 발표를 전후해 디스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확산됨에 따라 달러지수는 주간 기준 약 2.5% 급락 중이고 달러/원 이를 넘어 3%대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미국 6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상승률이 2년 여 만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또한 근 3년 만의 최저치로 둔화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주요 인사들이 여전히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대로 기저효과 등에 6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확연히 꺾일 것이라는 기대가 실제 지표를 통해 확인되자 연준의 연내 한 차례 인상 전망 속 달리는 약세를, 증시는 강세 압력을 키우고 있다.

달러지수는 100선을 밀돌며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이에 달러/원은 최근 5개월 동안 견고하게 유지됐던 박스권을 하향 이탈해 올해 2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스피는 외인 사자세가 전개되는 가운데 2620포인트로 올라 전고점을 향하고 있다.

▲ 원화 추세 전환 저울질..약달러+기술주 조합 기대 재부상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7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이에 더해진 경기 연착륙 전망 조합에 따라 달러 약세와 증시 강세 기대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소시에떼제네랄은 13일 보고서에서 내년 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지연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S&P 500 지수가 3분기 4750선까지 도달할 모멘텀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AI 붐이 기술 부문 EPS를 높이는 등 미세 신호가 강하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주식 내 기술주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대체적인 달러 전망이 약세 쪽으로 형성됐던 가운데 이날 달러/원 환율은 지난 6월 기록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은행 외환딜러는 "지금 달러/원은 크리티컬한 레벨 근처에 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도 거의 막바지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달러지수가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는 점을 보면 환율의 트렌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은행 외환딜러는 "역외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강한데 방향을 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원화 방향성을 이끄는 핵심 수급인 외인 주식 매매 동향도 원화 강세를 견인 중이다.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인들은 약 3천억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오늘을 포함해 4영업일 동안 이들은 1조원 상당을 순매수 중이다.

C은행 외환딜러는 "경상수급 불균형이 완화된 가운데 결국 원화 방향성은 심리와 주식 수급이다"라고 말했다.

HSBC는 최근 발간한 이머징 FX보고서에서 수익률이 낮은 아시아 통화 중에서 원화를 가장 선호한다면 테크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SBC는 하반기 달러/원 환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면서 연말 1,240원을 제시했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